

국제갤러리, '스털링 루비' 개인전 국내 첫 선보여

2013/04/10 08:46 등록 (2013/04/10 08:46 수정)



▲ Sterling Ruby 'Debt Basin 2' ,2011, bronze stainless steel pedestal, 243.8 x 243.8 x 50.8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국제갤러리]



▲ 작가 스텔링 루비,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국제갤러리]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국제갤러리는 오는 11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스텔링 루비(Sterling Ruby)전’을 개최한다.

스텔링 루비 개인전은 그만의 고유한 스프레이 회화 연작 및 도자기와 브론즈 조각 작품인 ‘Basin’(널찍한 대야 혹은 그릇과도 같은)연작과 부드럽고 유연한 성격의 검은 가죽 재질로 이루어진 설치 조각 작품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대표적인 작품은 대규모 회화들로서 캔버스에 스프레이페인트를 겹겹으로 중첩시켜 만들어낸 색 면들이 환영으로 채워진 대기를 연상시키는 화면구성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세라믹, 곧 조각 위에 물감을 떨어뜨린 후 풍부한 유약처리를 통해 매끈한 표면을 나타내는 도자기공업 기법의 작품 ‘Basin Theology’, 브론즈로 형상화한 조각인 ‘Debt Basin2’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원단들을 이어 붙인 콜라주 및 쓰고 남은 냅마가 된 천 조각들을 기워 붙인 풀과 그 잔해들, 그리고 일정 형식에 따라 데님(청바지)을 표백한 후 패치워크한 기법을 통해 콜라주한 평면 작품 BC 3977 등은 루비가 시도하는 실험적인 재료와 기법에 대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루비의 주요한 콜라주 연작 중 ‘EXHM’는 골판지를 재료로 한 모든 작품들을 총괄하여 지칭하는 제목으로서 기존의 정보에 새로운 목적이나 의미를 부여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 골

판지들은 작가의 신작 제작을 위한 재료로써 버려져 있었지만 향후 새로운 목적으로 재활용되는 작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스털링 루비는 1972년생으로서 현재 미국 서부의 로스앤젤레스에 거주 및 작품활동 중이다. 1996년 펜실베이니아 스쿨 오브 아트 앤 디자인 졸업 후 2002년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조형학 학사를 취득, 이후 2003년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아트센터 컬리지 앤 디자인에서 조형학 석사를 졸업했다.

루비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기념비적인 조각작품을 통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환각적인 색상들의 회화작품들 및 다양한 오브제를 통해 다층적인 이미지가 중첩된 콜라주 작품들을 제작해왔다. 그리고 비디오에서 영향을 받은 퍼포먼스 작품들과 그만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자리매김한 유약처리기법의 도자기공법을 활용한 조각 및 설치 작품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강이슬 기자 happy2seul@news2day.co.kr]

오늘의 즐거움, 내일의 꿈(www.news2day.co.kr) - copyright © 뉴스투데이.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